

셀트리온 렉키로나 '감마 변이'에 효과 동물실험서 '유효성'

투여군 생존률 100%... 대조군 0%
체중감소 방어효과 등 임상적 개선
'델타 변이' 실험결과 이달중 공개
초기변이 6종에 강한 중화능 확인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사진)'가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도 진행 중이다.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효능실험 결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감마 변이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쥐 55마리를 대상으로 렉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 역가가 크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사람치료 용량 대비 낮은 용량 투여 시에도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입증됐으며, 실험용 쥐의 경우 생존율에서도 렉키로나 투여군 생존율은 100%인 반면 대조군 생존율은 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진행 한 남아공 '베타' 변이에 대한 페럿(족제비) 및 실험용 쥐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와 일치하는 일관성 있는 결과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비록 베타 및 감마 변이에 대해 세포수준 중화능이 낮아지더라도, 임상에 적용된 도즈보다

16배 낮은 도즈에서도 생체 내에서 충분한 치료 효능이 발휘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렉키로나의 세포수준 중화능 및 동물효능실험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인도 발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7월 내 동물효능실험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렉키로나는 이미 초기 변이주 6종(S·L·V·G·GH·GR) 및 영국, 인도, 캘리포니아, 나이지리아, 뉴욕,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는 세포수준 단계에서부터 강한 중화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렉키로나의 치료효과가 동물실험을 통해 속속 입증되고 있다"며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긍정적 동물실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해 렉키로나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연중 최고치 경신한 코스닥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1038.18)보다 9.15포인트(0.88%) 오른 1047.3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코스피가 전 거래일(3281.78)보다 11.43포인트(0.35%) 오른 3293.21에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1038.18)보다 9.15포인트(0.88%) 오른 1047.3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1135.0원)보다 3.2원 내린 1131.8원에 마감했다.

/뉴스

6월 외환보유액 4541억 달러 '감소세'

한은, 달러 강세에 23.5억 달러 ↓
6월기준 유가증권 4193억 달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41억1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2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앞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말 45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는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 탓이다.

주요 6개국 통화로 달러화 가치를 평가한 달러화 지수는 6월 말 92.05로 전달에 비해 2.2%포인트 올랐다. 달러화

<5월 말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단위:억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2,218 (+236)
2	일 본	13,875 (+90)
3	스 위 스	10,732 (+28)
4	러 시 아	6,052 (+148)
5	인 도	5,989 (+109)
6	대 만	5,430 (+19)
7	홍 콩	4,945 (+39)
8	한 국	4,565 (+42)
9	사우디 아라비아	4,370 (-36)
10	싱가포르	3,981 (+124)

주: 1)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 자료=IMF,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에는 국제외 화사채등을 포함하는 유가증권과 예치금, 금, 특별인출권(SDR), IMF포지션(IMF회원국

이 출자금 납입, 용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등이 포함된다.

자산구성현황을 보면 6월 기준 유가증권은 4193억4000만달러(92.3%)로 전달에 비해 52억9000만달러 늘었다.

반면 예치금은 218억9000만달러(4.8%)로 전월 대비 75조5000억 달러 감소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당시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전월가 같은 47억9000만달러(1.1%)였다. IMF포지션은 6000만달러 감소한 45억8000만달러, SDR은 4000만달러 감소한 35억달러(0.85%)로 나타났다.

한편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이 1위로 3조2218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2위 일본 1조3874억달러, 3위 스위스 1조732억달러 순이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몰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제' 변경

금감원, 금융사 부담 완화

올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3년 주기제'로 바뀐다. 74개 금융사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해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구조다. 매년 평가 시 충분한 개선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업권 내 대·중·소형사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한다. 대상은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한 7개 업권 74개사다.

실태평가 주기는 3년으로 매년 1개 그룹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에는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한다.

단,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

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비대면 금융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평가항목을 개선했다. 계량지표 항목은 기존 5개에서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관련사항 등 2개로 압축했다.

비계량지표 항목은 비대면 금융이 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그 해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체계를 점검한다. 실태평가 대상회사(74개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라도 자율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초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말부터 서면 점검을 시작으로 8월 하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